월간 마을기업
발행인 행정안전부

MONTHLY
VOL.6

마 을 기 업

09
2026 Sept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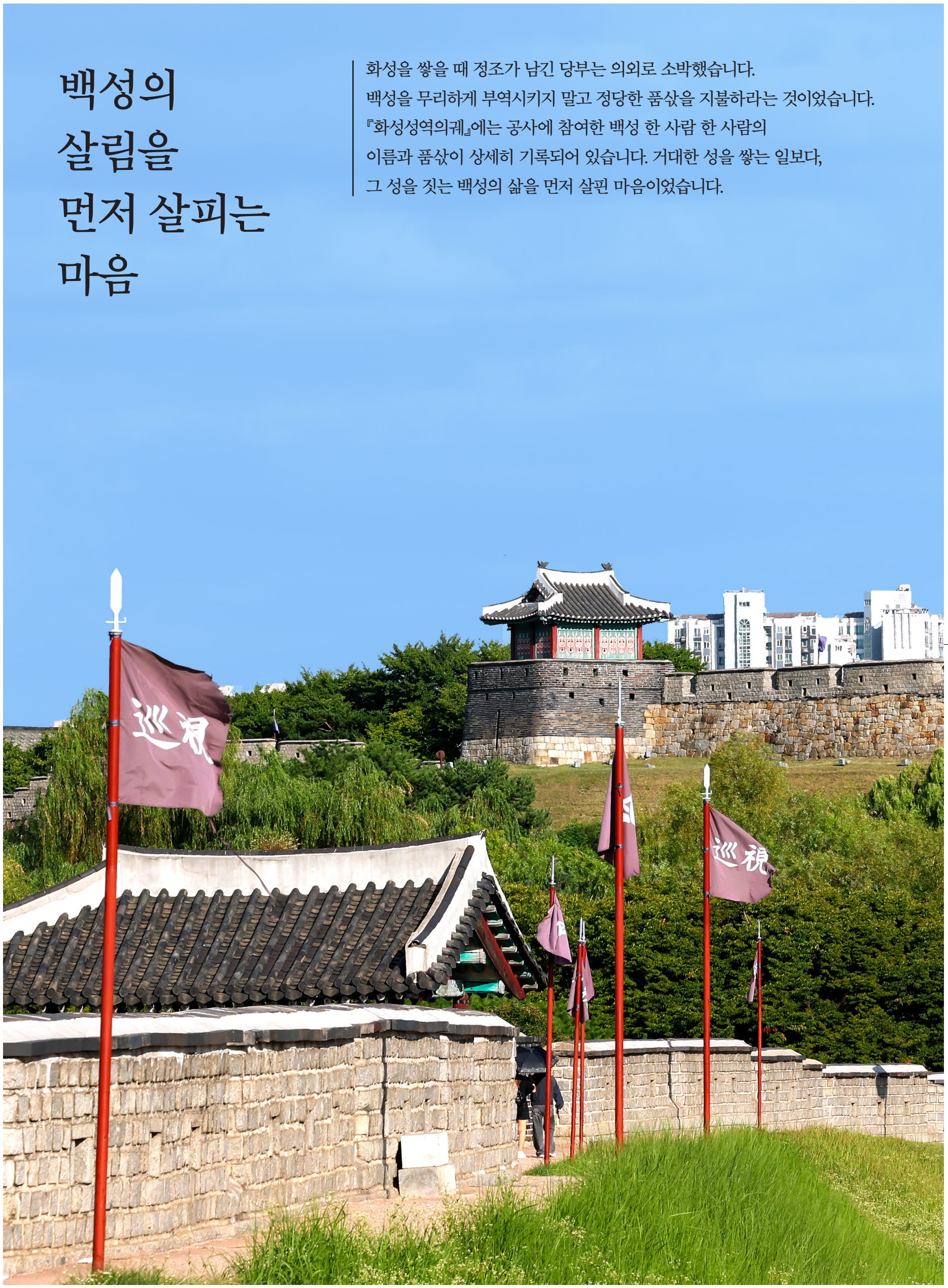
수원화성,
마을의 오늘을 만나다

성곽을 따라 만나는
수원의 마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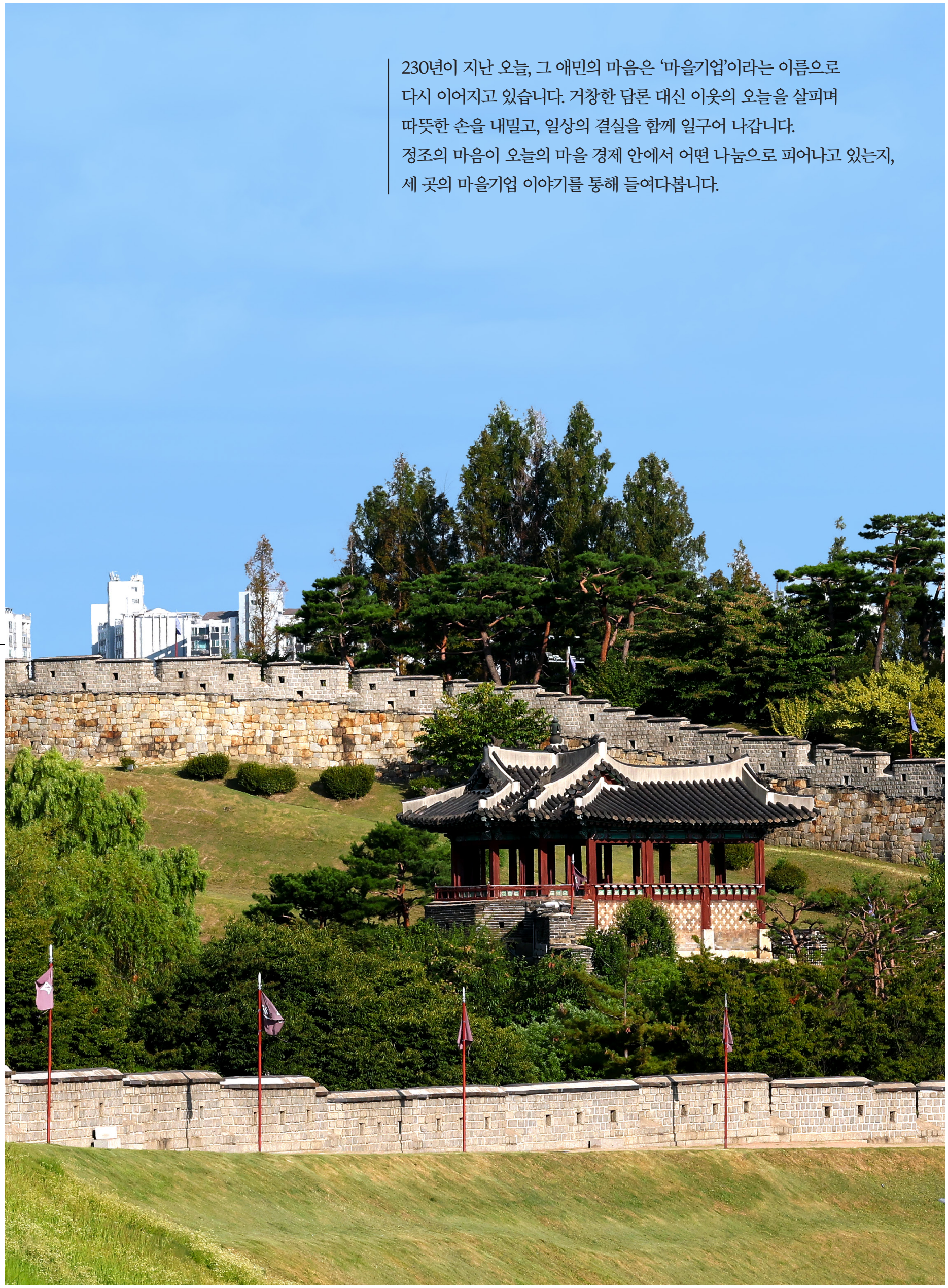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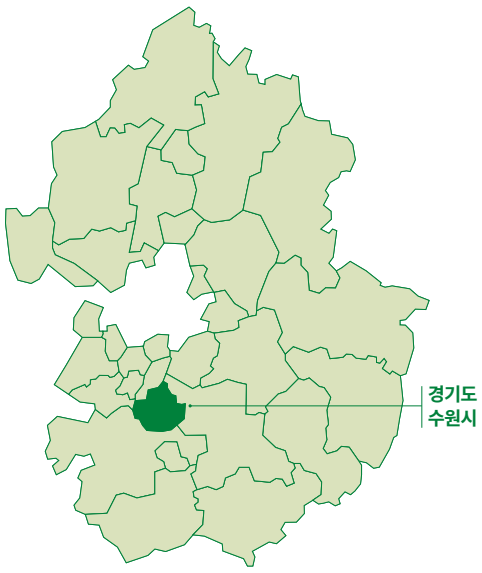
백성의 살림을 먼저 살피는 마음

화성을 쌓을 때 정조가 남긴 당부는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백성을 무리하게 부역시키지 말고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는 공사에 참여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품삯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는 일보다,
그 성을 짓는 백성의 삶을 먼저 살핀 마음이었습니다.



230년이 지난 오늘, 그 애민의 마음은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담론 대신 이웃의 오늘을 살피며
따뜻한 손을 내밀고, 일상의 결실을 함께 일구어 나갑니다.
정조의 마음이 오늘의 마을 경제 안에서 어떤 나눔으로 피어나고 있는지,
세 곳의 마을기업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봅니다.





애민정신이 낳은,
세 가지 나눔

마을 카페와 공구 대여, 위생관리 사업으로 이웃의 일상을 든든하게 받치는 영화동두레협동조합. 태양열 발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부터 주거 안정까지 삶의 터전을 넓혀가는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를 끌어내고 문화콘텐츠로 지역의 온기를 순환시키는 협동조합 참좋은수다까지. 세 마을기업의 실천은 결국 사람을 향합니다.
이웃을 살피는 마음이 나눔이 되고, 그 나눔이 결속이 되어, 다시 마을 전체의 단단한 살림으로 피어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삶터를 돌보는 이들의 행보는 오늘날 정조가 남긴 애민의 유산을 가장 따뜻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연대

손끝에서 피어난 연대, 삶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거점

협동조합 참좋은수다

공예 작가들이 모여 틔운 자립의 싹

'협동조합 참좋은수다'의 시작은 10여 년 전, 봉사와 나눔 활동을 위해 모였던 지역 여성들의 정겨운 수다였습니다. 경력단절이라는 벽 앞에서 저마다의 손기술과 공예 재능을 품고 있던 이들은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민정 대표와 조합원들은 플리마켓과 전시회를 거치며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단절의 위기 속에서도 서로의 삶에 기대어 버티고 또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강인한 유대감은 5년 전 수원 행궁동의 작은 매장으로 결실을 보았고, 마침내 마을기업 지정을 통해 단순한 소품숍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손으로 가치를 일구는 단단한 협동조합이자 공방, 제로웨이스트숍으로 거듭났습니다.

창작과 자원순환이 숨 쉬는 마을 커뮤니티

오늘날 참좋은수다는 30여 명의 무해한 로컬 창작자들이 만들어가는 튼튼한 메이커스 거점입니다. 카페와 감성 소품숍이 즐비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행궁동에서, 작가의 이름과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 컨셉은 참좋은수다만의 독보적인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대량생산된 소품이 아닌 정성 어린 핸드메이드 제품을 '무포장 원칙'으로 선보이며 지구에 무해한 일상을 제안합니다.

또한, 매장 한쪽 자원순환소에 모이는 병뚜껑과 종이팩은 이웃을 잇는 친근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가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토대이자, 창작자와 사람을 다정하게 연결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공방 작가들이 주축이 되는 월요일 정기 모임과 업사이클링 클래스, 소모임은 이웃에게 예술적 영감을 나누며 활기찬 마을 커뮤니티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도하는 참좋은 방법

'손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삶의 수많은 방법들(手多)'이라는 이름처럼, 참좋은수다는 이제 더 멀리 바라보며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점 작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브랜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간을 확장하여, 동네 안에서 창작자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취향과 일을 지키며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이끌어가는 느슨한 커뮤니티를 꿈꿉니다. 세대를 넘어 이웃의 오늘을 살피고 서로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참좋은수다의 행보는, 손끝에서 시작된 연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는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ㅁ

1. 참좋은 수다는 로컬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창작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2. 여성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만의 내일을 가꾸길 바라는 김민정 대표.
3. 창작자에게는 기회를, 지역 주민에게는 자원순환을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행궁동 지구인의 놀이터.

살림의 순환

구도심 골목을 지키고 삶을 보수하는 마을의 일꾼들

영화동두레협동조합

1. 1층 화장실 건물의 2층에 자리한 이색 휴식 공간으로, 유기농 원료로 만든 마스코트 디저트를 판매하는 또옹 카페.
2. 마을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구를 대여해 주는 생활 공구 대여소.
3. 영화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북카페.
4. 답례품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며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다져가는 서정국 대표.

동네를 지키다, 삶을 지탱하다

수원 화성 성곽 밑, 빛바랜 단독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영화동은 젊은이들의 발길이 드문 대표적인 구도심입니다. 이 동네에서만 46년을 살아온 서정국 대표는 주민자치위원장 시절, 매년 마을 행사를 치르고 구도심 살림을 끌어가기 위해 주민 단체장들이 사비를 모아야 하는 현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거나 일회성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마을 스스로 돈을 벌어 동네에 돌려주는 자립 생태계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해 발족한 '영화동두레협동조합'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중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집을 고칠 수 있게 돕는 공구 대여실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편히 쉬어가는 주민 사랑방 '북카페' 및 '또옹카페'는 영화동 자립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첫 거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군 반전의 흑자

하지만 고령자 비율이 90%에 달하는 구도심에서 카페와 공구 대여만으로 조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정국 대표는 머리를 싸매며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운영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수원시 곳곳의 버스 승강장 청소, 하천 빗물받이(LID) 관리, 심지어 겨울철 전신주를 더럽히는 까마귀 배설물 청소까지 남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현장 청소 용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과 근무자를 합쳐 34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고, 근무자의 80%를 지역 시니어 일자리로 채우면서도 연간 2억 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알짜배기 흑자 조합으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서무와 공증 서류 작업을 직접 챙기며 발로 뛴 서정국 대표의 뚝심은, 적자 위기에 허덕이던 마을기업을 수원시에서도 인정받는 '일 잘하는 조합'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골목의 온기를 넘어 더 넓은 자립으로

영화동두레의 시선은 이제 더 큰 자립을 향하고 있습니다. 행사 답례품으로 유용한 '실용적인 양말 세트'를 기획해 납품하는 획기적인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동네 노인정을 살피며 마을의 울타리 역할을 해온 시니어 일꾼들은, 이제 성곽 건너편 행궁동의 활기를 영화동 구도심까지 이어가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 협의체로 성장하며 젊은 세대가 찾아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것. 낡은 골목을 지켜온 이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영화동의 내일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ㅁ

애민의 손길

마을에서 피어난 에너지, 연대로 일구는 더 나은 내일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

1. 주민이 결정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명한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
2.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주민 맞춤형 마을활동가 교육.
3. 주민의 지갑을 채우는 경제 모델, 현장 활동가 조은석 상임이사
4. 모두가치는 주민의 참여로 돌아가는 햇빛발전소, 에너지로 여는 마을 복지를 꿈꿉니다.

공익과 연대로 닦은 새로운 터전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의 출발점은 수원 서수원권, 즉 옛 지명으로 '칠보'라 불리는 금곡동과 호매실동 일대입니다. 수원의 변두리이자 여전히 농촌의 풍경이 숨 쉬는 이곳에서, 골목상권 침체와 지역 사회의 여러 어려움을 현장에서 목도했던 조은석 상임이사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개별 상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고 이를 공익적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렇게 2021년 9월, 7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모두가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지역 공동체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햇빛발전에서 지역 일자리까지

모두가치의 주축은 주민참여를 통해 건립한 '마을햇빛발전소'입니다. 지자체의 공공 부지를 활용해 구축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조합의 단단한 재정적 기반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동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물 위생관리와 방역 소독과 공원 관리 사업을 병행하며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평생학습 마을과 연계해 탄소중립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생활 속 환경 운동을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창립 초기 10여 명의 발걸음으로 시작된 모두가치는 마을 주민들이 보내주신 두터운 믿음과 변함없는 성원에 어느덧 200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는 든든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스마트팜과 햇빛으로 일구는 내일

초기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 기로에 선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북동 일대에 주민 참여형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를 조성하여 농사·가공·체험이 어우러진 6차 산업 모델을 구축 중이며, 특히 아파트 옥상 유휴 부지를 활용한 600kW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발생한 수익을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과 햇빛 소득으로 환원하여 주민과 공동체가 함께 부유해지는 '수원형 햇빛소득마을'의 거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매출 목표를 대폭 늘려 잡은 모두가치는, 햇빛과 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서수원 땅 위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립니다. 이들의 행보는 오늘날 정조가 남긴 애민의 유산이 마을 경제 속에서 어떻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中

성곽 아래 피어난 온기,
마을의 내일을 지탱하는 손길

수원 화성이 오랫동안 이 땅을 따뜻하게 품어왔듯, 오늘날 마을 경제를 지키는 힘 역시 거대한 구호가 아닌 사람들의 촘촘한 온기에서 나옵니다.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함께 걷는 세 마을기업의 발걸음은, 낡은 골목에 온기를 불어넣고 이웃의 오늘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쇠락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함께 잘사는 삶,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갑니다."

영화동두레협동조합
서정국 대표

**마을카페 또옹에서 시니어 바리스타가 전하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휴식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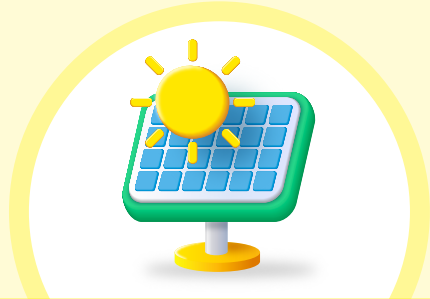
마을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고,
영화동행정복지센터 공구대여실에서
필요한 공구를 나눠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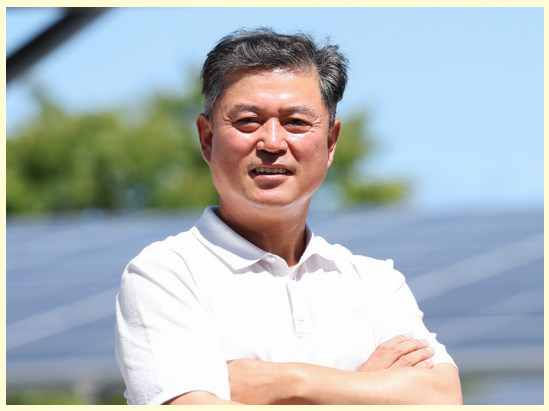
"만들고, 나누고, 맞잡는 손길이
사람을 만듭니다.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손짓을 지향하는 이유입니다."

협동조합 참좋은수다
김민정 대표

**무해한 창작자들이 만드는
지구인의 놀이터 만나기**

제로웨이스트 실천부터 창작 워크숍,
소품숍 운영까지. 수원의 결을 담아 다정한
가치를 만드는 무해한 창작자들을 만나봅니다.





"마을의 햇빛과 바람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이웃의 복지를 일굽니다."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
조은석 상임이사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드는 미래 그려보기**

태양광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모두가치사회적협동조합의 철학을
만나보세요.